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행렬... “유족·시민, 재발방지 다짐”

어느덧 찾아온 10·29 이태원참사가 3주기에 발맞춰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보랏빛으로 물든 추모 행사는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아픔에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 전문가도 추모 행위가 유족과 일반 시민에게 참사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광화문광장서 정부 첫 공식 추모행사...李 “잘못 바로잡겠다”

29일 뉴스스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3주기를 맞은 이날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와 정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참사일을 상징하는 10시29분. 행사 시작에 맞춰 광장에는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행사장에 모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생자를 위해 묵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총분치 않았던 사고와 위로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 등을 향해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故) 이재현씨의 모친인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거대한 비극 뒤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성숙해지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게 해달라”라며 “이 고통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다면, 비극이 더 나은 내일의 계기가 된다면 159명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요청했다.

◆3주기 앞두고 피해자·유가족·시민 참여하는 행사 진행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달 20~31일을 집중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자, 유가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집중추모기간 ▲기억물품 공작소



김민석(왼쪽부터) 국무총리,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진 진보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뉴스스

이달 20일부터 참사 집중추모기간... 31일까지 행사 계속 전문가 “모여 위로·추모하고 슬픔·미안함 공유하면 도움” “PTSD·트라우마 오랫동안 계속되면 의료기관 도움받길”

(21~23일) ▲재난참사 관련 신진학자 연구포럼(22일)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기자 간담회·전시회 개막(23일) ▲3주기 광주·전남 추모행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25일) ▲3주기 해외동포 온라인 추모제(26일) 등이 열렸다.

3주기 당일인 이날 오후에는 3주기 경기 수원시에서 추모행사와 추모메시지 낭독 문화제·추모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 “재난 뒤 괴로움에 짓눌려... 추모 행위가 해소에 도움”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 진행되는 추모 행사가 유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건강한 형태로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고 위로받는 과정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발생 뒤로 일부

시민은 큰 괴로움에 짓눌려 감정을 억제하게 되는 데, 추모 행위가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죄책감이나 분노 등을 억압하면 불특정된 분노가 거꾸로 더 올라오게 된다”라며 “정당하게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추모하고, 슬픈 감정과 미안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의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제일 좋은 방법은 기리는 활동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마음의 짐이 자꾸 생기는 부분에 관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비극 사건은 발생했고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지만, 봉사든 기부든 선한 행위를 사소하게라도 실천하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재감하는 편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아라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는 “사회적 사건을 같이 공유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측면에서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행사의 어떤 목적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떤 참사와 관련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인 공감이 이뤄지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고 같이 의지를 모아 추모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재난 뒤 경과 중요...고통 오래 계속되면 의료기관 도움받아야”

전문가는 오랜 기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권하기도 했다.

전북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면 죄책감을 많이 없애줘야 한다”라면서 “일단 대형 사고가 났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뒤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시험장까지 데려다드립니다”

광주소방, 수능날 이송지원단 운영

광주소방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펼쳐지는 당일 수험생 대상 119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인 11월 13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19 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19 이송지원 서비스는 장애·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험 날 오전에 수험

생은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이송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시험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예약하면 된다.

또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험장 내 응급환자·화재 발생에 대비해 전체 시험장에 구급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민규 기자

상호금융 4곳서 38억대 불법대출 일당... 법정서 “몰랐다”

광주 신협·농협 4곳 피해... ‘담보’ 토지 가격 부풀려

담보인 토지의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 등으로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기관 4곳을 상대로 38억대 불법 직업 대출을 벌인 일당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알선책 A(64)씨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차주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알선책 A씨를 비롯한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토지감평가 과다 산출 ‘UP(업)’ 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역 내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농협 등 4곳으로부터 38억7000만원 상당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기관 직원과 법무사 등은 담보 감정 평가를 부풀리거나 담보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토지 가격을 실제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 불법 직업 대출을 주도·공모했으며 직업대출 알선 대가로 47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대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으나 일부는 ‘사기인지 몰라서 고의가 없었다’ 단순 부당산 등기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며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0일 오전 열린다. /뉴스스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의 날’ 참가자 모집

11월7일까지... 장기자랑·백일장·토크콘서트 등 3개 분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에 참가할 유학생을 오는 11월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내국인 청년·시민들과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 축제의 장으로, 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13일 5·18민주광장에서 ‘전남대 국제교류의 날’ 행사와 함께 열리며 유학생 장기자랑, 대한외국인 N행사 백일장, 유학생 토크 콘서트(V-talk)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자 모집은 ▲유학생 장기자랑(노래·춤·퍼포먼스) ▲대한외국인 N행사 백일장 ▲V-talk(유학생 토크콘서트) 등 3개 분야이며, 정보무늬(큐알코드) 또는 운영사무국(1877-194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 장기자랑은 노래·춤·퍼포먼스 등에 자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은 행사 당일 무대에서 진행되며, 대상 7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 장학금이 수여된다.

N행사 백일장은 ‘무등산’, ‘소년이 온다’ 등을 주제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케이(K)-전통체험 행사로, 사전 모집된 50명이 참여한다. 장원 30만원, 차석 20만원, 탐화 1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유학생 토크 콘서트 바이토크(V-talk)는 유학생이 직접 유학생생활 에피소드와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2명을 선발해 기념품을 전달한다.

이밖에 행사장에는 ▲랜덤플레이 댄스 ▲글로벌 추억의 놀이터 ▲체험부스(퍼스널컬러, 마술 등) ▲유학생 서포터즈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또 유학생 취업상담, 비자 상담, 유학생 할 안내, 대학 홍보 부스 등도 함께 운영해 유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꽂’... 보험금 타낸 배달·택시기사 송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36)씨와 택시기사 B(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넘어져 비정족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대 일방통

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등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 등 최근 4년간 389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권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